지평선 딛고 하늘 만지는 삶

(에스겔 10:1~22)

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2.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6.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7.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8.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지평선 딛고 하늘 만지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평선 딛고 하늘 만지는 삶’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기에 바다로 나가면 수평선을 볼 수는 있지만 지평선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으로는 김제평야가 유명합니다. 한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지평선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을 향해 달릴 때에 보았던 지평선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란하늘에 뭉게구름이 떠있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몬트리올까지는 다림질을 해 놓은 듯이 평평합니다. 도로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뻗어있는 도로 위에 구름이 얹혀있습니다.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구름을 손으로 만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지평선은 멀어져만 갑니다.

이 땅위를 걷고 달리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지평선까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머리 위에는 하늘이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지평선은 아득히 멀리 존재합니다. 하늘을 향해 뛰어도 하늘에는 닿을 수 없고 지평선에 다가간 만큼 지평선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선민은 지평선을 딛고 하늘을 만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지평선에서 출발합니다. 발로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밟고 손으로는 하늘과 구름을 만지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선민은 발밑에 지평선을 밟고 살아가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대표작인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상태를 희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높이 떠있는 하늘 아래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선민은 하늘과 땅의 간격이 사라져서 밀착된 지평선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구름을 잡거나 구름을 타고 다니고 땅에서 하늘을 만지고 하늘에 머물면서 땅을 삽니다. 마치 비닐봉지의 공기를 빼면 양쪽 면이 밀착되는 것처럼 선민에게서는 하늘과 땅이 붙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란 하늘이 땅에 개입되고 땅에서 하늘에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이 땅 어디에도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짜 평강과 가짜 기쁨과 가짜 행복에 목말라하며 갈증 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평선에 서는 것 외에는 진정한 복지를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지평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에덴과 약속된 복지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민은 지금 서있는 자리를 지평선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장에서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도 그 보좌와 생물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묘사가 1장에서와 다른 점은 구름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와 네 생물을 보았는데, 본문에서는 보좌와 네 생물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3~5절에서는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

다.

구름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구름 위에는 하늘이 있고 구름 아래에는 땅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구름 위는 따로 구분 되는 공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구름 위에 있는 세계로 보고 인간 세상을 구름 아래의 세계로 상징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세계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왔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지평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의 돌판은 인격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상징합니다. 이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선민들은 땅에 있습니다. 성전은 이 하늘과 땅의 간격을 없애는 장소였습니다.

선민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거리를 없앰으로써 지금 이 자리를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평선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성전을 통해 땅과 하늘의 간격을 없앰을 통해 이 일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간격조차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격이라는 말은 두 점 사이를 잇는 거리입니다. 이 두 점은 나와 하나님입니다.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거리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상번제로서 바로 이 간격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상번제의 생활화를 강조했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바라시는 것은 육체가 인간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벗어나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현장을 지평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지평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헤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하는 상황을 지평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닐봉지에서 공기를 빼면 두면이 바짝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서 땅의 상태를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우리 삶이 진행되는 땅과 맞닿게 됩니다.

배는 바다를 떠나면 안 되지만 바닷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잠수함은 바다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안으로 바닷물은 한 방울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주에 떠있는 우주선도 기밀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민의 삶에도 해당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하지만 세상이 조금도 담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세상을 빼버리면 하늘과 땅은 맞닿은 지평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민은 삶의 현장 전체를 이러한 지평선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직장이 신통치 않더라도 선민이 해야 할 일은 직장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으면 직장도 자녀관계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환상은 1장과 유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남보석으로 묘사되고 있고 보좌 주변의 네 생물 또한 똑같이 바퀴가 달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1장에서는 에스겔이 천국의 상황을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으나 본문에서는 이 하늘 보좌가 땅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담든 싫어해서 담든 땅의 것을 담으면 하늘과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평강하고 행복한 삶은 하늘과 땅이 맞닿을 때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에 사업을 담으면 땅에 개입되어야 될 하늘은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마음에 사업을 담고 있는 동안에는 하늘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사업을 담았던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진공상태가 되면 내 마음을 중심으로 위에 있던 하늘과 아래에 있던 땅이 붙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지평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평선이 되면 제일 먼저 보좌에 앉으신 영화로운 광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산 아래의 모든 일들을 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서 1장에서 보았듯이 네 생물은 날개와 함께 바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고 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바퀴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민은 발로 뛰며 이력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굴러간 자리를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민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의 과정이 존재할 뿐 스스로 걷고 뛴 이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퀴와 구름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채로 땅에 사는 나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고 원하시는 뜻을 명령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태승철의 부부관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라. 태승철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라. 태승철이 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방송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퀴로 상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퀴는 허공에 떠있는 한 공회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에스겔이 살던 시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퀴로 상징된 이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선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공회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바퀴가 이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선민은 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셔서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선민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며 하늘과 땅이 닿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대상과 많은 영역들을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일이나 인간관계나 건강 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 보배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선민으로써 해야 하는 일은 이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가지신 보배로운 뜻과 계획도 이 땅에 닿지 못한 채 헛돌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 염려한다면 마음에 사업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에 목회를 담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늘은 땅과 닿지 못한 채 머리 위의 높은 곳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땅에 있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과 계획의 바퀴가 땅에 닿지 못한 채 공회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선민이 해야 할 일은 사업이든 목회든 땅의 것을 담은 마음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진공상태가 되어서 하늘과 땅은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든 목회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보배로운 뜻과 계획의 바퀴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

늘에 있습니다. 이 건강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동안에 하늘은 계속해서 멀어져갑니다. 마음에 건강을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은 지평선을 잡기위해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멀어지게 한 하늘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으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또한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땅을 담아서 하늘이 멀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지평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는 나무에게 섭리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써의 섭리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소원이 우연히 일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삶에 대한 접근법도 전혀 달라집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건강이 빠져나가고 나면 진공이 이루어지고 건강이라는 영역에 대해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됩니다. 그러면 내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땅에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게도 하실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것이라면 선민이 아닙니다. 선민이라면 아무리 급하고 아파도 마음에 들어온 건강에 대해서 죽고 하늘과 땅의 지평선을 이루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의 문제가 지평선상의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에 대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의 바퀴가 땅에 닿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선민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2절에서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온 천사들 중에 서기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에게 바퀴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꺼내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하늘의 불로 하늘의 힘을 의미합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퀴 안의 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을 마음에 담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마음에 담음으로써 하늘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지평선상에 있었다면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굴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땅을 담아서 하늘과 땅이 떨어진 결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는 헛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 삶에 대한 하늘의 힘이 합당하게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하는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불을 뿌리라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속이 탑니다. 속이 타는 이유는 단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헛도는 중에 누적된 힘들이 심판의 불로 변해서 내 속을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자녀를 담고 배우자를 담고 살아가는 동안 하늘은 멀어집니다. 지평선에서 바퀴를 굴려야 될 힘이 심판으로 바뀌어 임하고 있으니 속이 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갈증을 느끼듯이 삶에서도 갈증이 납니다. 삶이 뜨거운 불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퀴를 굴리는 힘으로 쓰여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심판의 불로 바뀌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시든지 선민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선민을 기쁨과 만족 속에 살게 하시려고 매 장마다 담아놓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땅을 담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땅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돌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영광이 보이고 땅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평선을 발로 딛고 하늘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광채에 감격하는 동안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바퀴가 굴러갈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덩이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에 세상이 담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덩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화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지평선을 딛고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